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합격!

강남대성학원 자연 8반 신동훈

2019년 강남대성 재수 정규반에서 8반을 다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학번으로 재학 중인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 비법보다는 재수생활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공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이유는 개념이나 응용력, 문제 풀이 스킬 등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아 보충해 나가야 하는데, 이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망각하고 새로운 지식만 갈구한다면 후회가 남는 1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3월 초창기에 많은 학생들이 재수학원에서 해주는 개념강의가 이미 아는 내용이고,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수학원을 그만두고 독재학원이나 다른 학원으로 옮깁니다. 독재학원을 다니면 의지가 매우 강하지 않은 이상 올바른 공부 방향으로 실속있는 공부를 할 수 없고, 학원을 바꾼 학생들은 다른 학원들도 배운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학원을 떠나고 정착하지 못하거나 독재를 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공적인 재수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는 내용이어서 지루해서 나만의 커리큘럼을 짜겠다는 안일하고 건방진 마인드보단 제가 강조한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재수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점수에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보면 월례 고사 뿐만 아니라 수업마다 보는 시험까지 지켜올 정도로 시험을 많이 봅니다. 잘 본 시험은 발전한 나의 모습에 대견함을 느끼고, 못 본 시험은 반성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과다한 감정 즉 자만과 좌절을 느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설모의고사는 수능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의 척도일 뿐입니다. 그러니 시험은 개념 정리와 자아 성찰의 용도로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9평가원도 똑같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 수능도 아니고 중간점검 시험입니다. 6, 9월 평가원이 당해 수능 출제 경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나의 시험점수와는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평가원 점수에 일희일비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후 슬럼프가 크게 찾아왔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9월 평가원 점수만 보고 크게 좌절했고, 점수만 자꾸 머리속에서 맴돌아 망고생이 심했습니다. 다행히도 담임선생님과 의 갖은 상담 덕분에 슬럼프를 빨리 극복해 수능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슬럼프가 더 길어졌다면 지금 합격수기를 쓰는 사람이 아닌 읽는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에 대한 감정은 시험 당일 날 떨쳐버리고, 피드백에 신경 쓰길 바랍니다.

재수를 하겠다는 선택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고민한 시간에 후회가 남지 않게, 10개월이란 시간에 미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1년도 안 되어 보이는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재수생활 하면 더 빠르게 훌훌 지나갑니다.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남들이 보기에도 충분한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곳은 물론이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후배님들의 2021학년도 수능 대박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